

### 추사 150주기 기념행사 풍성

각종 전시·강연 이어져

추사체의 대성, 불교, 금석학, 고종학, 실학, 시문학, 문인화의 대가 추사 김정희(1786-1866). 서거 150주년을 맞아 김정희를 새롭게 조명하는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추사 김정희의 제자 허연이 그린 추사의 초상화.

국립중앙박물관(02-2077-9000)이 '김정희 명품 컬렉션'을 표방한 '추사 김정희 학예(學藝) 일치의 경지'는 10월 3일 개막한 이래 관람객들의 인기를 얻으며 11월 19일까지 계속 된다. 국보 제180호인 세한도가 10m에 이르는 발문까지 완전 공개된다. 90여 점의 추사 유물을 선보이는 전시와 함께 11월 1일에는 이원우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가 '추사 김정희의 서풍(書風)'을 강의한다.

간송미술관(02-760-0442)은 10월 15일부터 단 2주간 '추사 150주기 기념특별전'을 열고 있다. 10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조선말기 회화전'을 여는 삼성미술관 리움(02-2014-6801)은 추사실을 별도로 만들어, 보물 제547호 <반야심경> 등을 공개하고 있다. 11월 25일에는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에 대해 유홍준 문화재청장, 12월 16일에는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를 주제로 이태호 명지대 교수가 특강한다.

과천시민회관(02-504-7300)이 9월 말부터 전시하고 있는 '추사 글씨 귀향전'은 추사 연구의 선구자인 일본 학자 후지즈카 치카시로부터 기증받은 추사 관련 자료 2700여점 가운데 추려낸 110점을 11월 8일까지 전시한다.

추사 김정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불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작품들에 비치는 추사의 마음을 통해 추사가 불자들에게 보내는 기사의 편지를 띄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불이선란도'에 하늘의 본성을 담았습니다

(不二禪蘭圖)

### 기상 편지 / 추사 김정희가 불자들에게 띄웁니다

사바세계와 등진지 150년이 흐른 지금 그 옛날 가졌던 불심을 되살려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불심을 키우고 계신지요. 예전에 저는 마음의 안정을 구하기 위해 수시로 <반야심경>을 써왔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때가 묻은 몸으로 <반야심경>을 쓴 것은 불 속에서 연꽃이 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더러운 곳에 살면서도 늘 청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호법금강에게 비웃음 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썼지요.

그렇게 쓴 <반야심경>을 절친한 도반이자 학문적 동반자였던 조의선사에게, 조용히 독송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의선사에게 써 보낸 사경 가운데는 <열반경>도 있었지요.

조의선사가 서른이 되던 해 처음 알게 돼 평생을 교류했어요. 제가 유배지에 있을때도 수시로 서간을 띄워 차도 보내달라 하고, 경전도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출가하기 전 과거에 머무름 때 송의 고승 대혜선사의 공안 하나를 남김없이 다 타파했습니다. 어쩌나 기쁘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을 전하며 조의선사에게 당나라 도세 소님이 편찬한 <법원주립>과 송나라 영명연수스님이 편찬한 <중경선편어록>을 고증하는 것은 어머니나 추천하기도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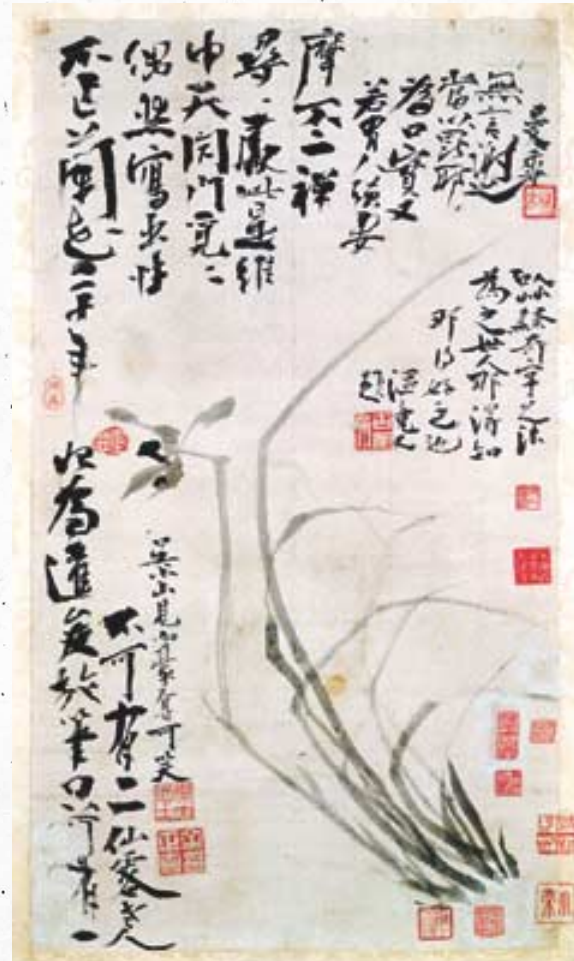
조의선사에게 보냈던 17편의 편지들은 <나가목연(那迦墨緣)>이라는 이름의 편지첩으로 현재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11편은 <완당전집> 권5 서쪽에 실린 편지 37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6편이 <나가목연>에만 남아 있는 편지예요.

제 속에 녹아든 불교를 가장 깊게 표현한 작품은 <반야심경> 사경도, 사찰 현판도 아닌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라 감히 자부합니다. '불이선란도'는 거칠게 흩어진 메마른 난초를 그렸어요. 거친 난초잎사귀 한 편에는 꽃도 한 송이 달렸지요.

제가 지향하고 있는 이상적인 난초 그림의 경지를 실현한 작품입니다. 학계 전반에서 지금까지 '추사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이 사회와 함께 일체화 있고 화풍과 인품이 맞닿아 있는 불세출의 작품'이라는 평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이선란도'는 20여년 만에 그린 그림입니다. 하늘의 본성을 그려냈다는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오랜 마음공부끝에 나온 작품입니다. 문을 닫고 깊이 깊이 찾아가 그 경지가 바로 유마의 불이선이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누구라도 강요한

제주도에서 9년, 북청에서 2년, 두 번의 유배생활 끝에 과거에 돌아온 저는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예순 여덟 나이에 붓을 사들여 아가 구축계를 받고 승복을 걸었습니다.



서예기법에 따라 '난'을 그린 '불이선란도'는 추사 김정희를 당대 최고의 문인화가로 만들었다.

다면 저는 마땅히 비아리성에 살던 유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열 여섯 살에 어머니를 여읜 제가 어머니 품으로 삼았던 곳이 집안의 원할 예산 화암사입니다. 그래서 화암사 현판도 쓰고, 대웅전 뒤편 바위에 글도 새겼지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연주가 지금은 보물이 되어 있더군요.

조의선사와 함께 제 벗이었던 이가 백파 공선 대사입니다. 백파대사는 제 학문적 동반자이기도 해요. 백파가 열반한 후 제가 비문 '화엄종주백파대율사대기대옹지비(華嚴宗主白坡大律師大機大用之碑)'를 썼지요. 이 비문의 글씨는 제 만년의 걸작중의 걸작이라고 세간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백파대사에게 서간을 보내 불교에 유교와 세상속설을 끌어들이어 합리화하는 전통적인 사고를 탈피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불경과 유가경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속진에 물들지 않고 부처님 품안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괴로움을 돌려 즐거움으로 삼게 된 것은 제가 불교 공부를 하고 수련을 했기 때문일까요.

러나 유불회통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교 안에서 선은 선 자체고, 화엄은 화엄이며, 반야는 반야로 존재해야지 그것을 뒤섞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저는 유교는 유교만의 장치(長處)를 지니며, 불교는 불교만의 장치를 지닌 엄연한 독립체라고 생각합니다. 섞이기 보다는 오히려 주변을 얹고도 군더더기를 버려 다시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눠 결국 자체의 제법실상이 드러나기를 희구해야 합니다.

깨달음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참선을 한다하여 교학공부를 게을리 한다면 득도의 난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금강경> <능엄경> <유마경> <관음경> <화엄경> <법화경> 등을 읽으며 공부했어요. 경전을 사경하는 것도 훌륭한 수행방법으로 제가 자주 했던 수행입니다.

<전등록> <법원주립> <중경전부> 등을 읽으며 화두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승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외손자이자 제 수제자인 금계 운종진에게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구하고 싶다는 서간을 띄우기도 했지요.

정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유배생활을 하는 등 거대한 세파와 마주해 싸워야만 했던 저에게 불교는 진정한 안식을 주었습니다. 속진에 있을지라도 속진에 물들지 않고 남은 여생 부처님 품 안에서 보냈던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요. 괴로움은 본래 지은 업에 반연해서 나왔다 사라지곤 하므로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괴로움을 돌려 즐거움으로 삼은 것은 제가 얼마간이나마 불교 공부와 수련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썼던 선시로 편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락산사(水落山寺)

아견일여월(俄見日與月) 나는 저 해와 달을 쳐다볼 때 광경각상신(光景覺常新) 광경이 늘 새로움을 깨닫게 되네. 만상각자재(萬象各自在) 만 가지 상이 각각 다 그대로라. 찰찰급진진(剌剌及塵塵) 굽은이 나라와 나라 수지현관처(誰知玄廓處) 누가 알리 어둠이 어둠 된 곳에 차설동자인(此雪同此人) 이 눈이 이 사람과 함께 한 것을 허뢰착위우(虛獲錯爲雨) 빈 소리는 빗소리로 착각하고, 환화불성춘(幻華不成春) 환화는 봄내 봄을 못 이루도다. 수중백억보(手中百億寶) 손 가운데 백억의 보물은 증비결지린(曾非乞之隣) 이웃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네.

## “이름 대사전”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성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 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

###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化

상표등록 : 614981호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노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 **방한용 털신**

털 깔창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최고의 선물**

■ **건강 슬리퍼**

지압(형) 실리콘 편, 특수복원단, 개인별표시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 **좋은 짚**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굵 높이를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깔창은 특수 황금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리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5727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정우 천연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신뢰**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냉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정우 천연 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 96번지  
전화 062)226-4445  
팩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